



성명서

2021. 12. 4 (토)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문의) 02.784.9862

김성태는 나쁜 청탁, 권성동은 착한 청탁?

윤석열 후보는 권성동 사무총장의 강원랜드 청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1차 교육생 선발 인원 320명 중 89%, 2차 교육생 선발 인원 198명 전원이 취업청탁대상자로 밝혀지고, 최홍집 강원랜드 전 강원랜드 사장, 염동열 전 의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큰 충격을 줬다.

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자 윤석열 대선 후보 핵심 관계자로 언급되는 권성동 의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인물이다. 권성동 의원은 ①교육생 선발과정에서 13명을 채용 청탁한 혐의 ②강원랜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 ③강원랜드 사외이사 채용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청탁 관련 판결문

다) 피고인 A은 2012년 말경부터 2013년 초경 사이에 D에게 E가 C에서 대관업무 하고 싶어 한다면 자리가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D는 '검토 후에 가부를 알려 주겠다'는 취지로 답한 후 CP실장 CB를 통하여 대관업무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여 '대

관업무 자리가 다 차서 들어
않아 다시 국회를 방문하여
채용 외에는 채용할 방법이
없었다.

라) E는 C의 G 수질·환경
면이 없던 CQ팀장 CC에게
탁하였다.

마) E는 G 수질·환경
중 2016. 3.경 GV팀으로 보
다.

① C 대표이사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9.경 내지 2013. 10.경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를 방문하여 피고인 A과 C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사람 하나 안 뽑소?' 라고 물으며 E를 쟁겨달라는 취지로 요청
하여 수질·환경 전문가 채용계획이 수립된 상태는 아니었으나 CD사업팀을 만들 때 인
력 확충 로드맵이 있었고 G 조성사업에 인력을 많이 충원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고 판단되어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후 G 조성사업의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 '2013. 11.경 E가 C 직무실로 찾아와 이력서를 전해주었고, 그 후
피고인 A과 통화를 하다가 E가 와서 이력서를 놓고 갔다고 얘기했더니 피고인 A이

'나한테는 이
가진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 대표이사 D이 AZ도를 지역구
로 하는 재선 국회의원인 피고인 A에게 개별소비세 개정안 및 G 조성사업 감사와 관
련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며 이를
승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권성동 사무총장이 자신의 비서관 채용을 강원랜드 측에 청탁하고, 강원랜드 현안 청탁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실제 존재했음을 확인했다. 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이 기술적으로 청탁 당시의 형사법 망은 피해갈 수 있었겠지만, 채용을 요청한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채용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해 평가 또는 판정”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용하던 김성태 전 의원은 ‘딸 특혜 채용’ 문제로 서둘러 손절했지만,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의 권성동 사무총장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는 윤석열 후보에게 공정이란 무엇인지 묻는다.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 권성동 사무총장의 당시 행태가 현행 청탁금지법에 반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의견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늘 공정을 외치는 대통령 후보자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착한 청탁, 나쁜 청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 일관성 있는 인사 기준을 적용하여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으로 인해 생긴 청년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윤 후보는 권성동 사무총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

2021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단장 김병기

부단장 홍기원 황운하